

# 정부기관 소식

농림수산물부  
소식



## 장태평 신임 농림수산물부 장관 취임

고객 중심의 효율적이고 원칙 있는  
자율적인 농정 구현

장태평 농림수산물부 장관이

2008년 8월 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집무에 들어갔다. 4월부터 끌어온 미국산 쇠고기 정국과 비료·사료·유류 가격상승 등 어려운 여건에서 취임한 장 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시련과 어려움을 새로운 도약을 위한 동력으로 승화시키자고 강조하였다.

장 장관은 취임사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과정을 교훈으로 삼아 4,800만 국민에게 안전한 농식품을 책임지고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국내산뿐만 아니라 외국산도 ‘국경에서 가정까지’ 단계별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원산지 표시제·이력추적제 등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장 장관의 농정 목표는 농림수산업을 강한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생산자 조직화와 규모화, 농어업금융 개편, R&D 지원 등을 강조하였다.

또한 농수산물 유통 개선과 식품산업 육성을 통해 2007년 42억달러 수준인 농식품 수출을 향후 5년 내에 100억 달러로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생산자의 유통교섭력 강화, 산지와 소비지간 공정거래질서 정착, 사이버거래 도입 등 유통구조 개선을 추진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계획이다. 외식산업을 경쟁력 있는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으로 육성하고, 한식의 세계 5대 음식으로 도약, 수출 지향형 국가 식품 클러스터 조성 등으로 농식품 수출 확대의 초석으로 삼는다.

또한, 초고령화된 농어촌을 우리나라 미래사회의 현



재형이라고 규정하고 선진복지정책을 농어촌에 먼저 시범

시행하고 도시로 확대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한편, 장 장관은 국민과 농어업인에게 감동을 줄 수 있도록 ‘고객 중심 행정, 행정에 경영마인드 접목, 원칙 있는 행정, 농어업인 등이 주체가 되는 자율농정’을 주문하였다.

아울러 농어업계에 세계와 경쟁하고 사랑받는 강한 농식품산업을 함께 만들어 가자고 하면서 스스로 경쟁력을 길러 수출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강한 농어업인이 되자고 역설했다.

장 장관은 “원칙”을 강조하는 스타일이다. 2004년 농업정책국장으로 재직하던 때, 복잡한 이해관계로 10년 동안 끌어온 ‘농협법 개정’을 뚝심 있게 처리한 사례가 잘 보여준다.

하지만, 원칙을 정하고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원칙의 범위 안에서 “포용”하는 모습도 자주 보게 될 것으로 보인다.

농·어업계는 장 장관의 신념과 풍부한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농식품부의 위상을 제고하고, 원자재 가격 상승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림수산업의 발전에 큰 보탬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장 장관은 평소 ‘농어업은 사양산업이 아니라 가장 오래된 산업이자 가장 오래 지속될 산업’이라고 말하면서 농어업에 대한 강한 애정과 신념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농촌진흥청  
소식



**하절기 부정·불량축산물 특별단속 실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2008년 8월 4일~29일까지(4주간) 여름철에 많이 소비되고 부패·변질되기

쉬운 축산물(아이스크림, 우유, 양념육류 등)을 취급하는 업체에 대해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특별 위생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단속 주요 대상은 아이스크림, 우유, 양념육류 등의 축산물 취급영업소(유가공업소·식육가공업소·우유류판매업소·식육판매업소 등)이며, 중점 점검사항은 보존 및 유통(냉장·냉동온도 유지 등) 기준 준수 여부, 원료 사용의 적합성,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취급 여부, 표시사항의 적법성 여부 등을 점검하는 한편, 변질 우려 축산물에 대해서는 수거검사를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축산물위생감시 사항을 사전에 예고하여 업체의 자율적인 위생관리를 도모토록 유도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립수의과학  
검역원 소식



**농촌진흥청, 고객만족도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평가**

농촌진흥청(청장 이수화)은 중앙행정기관별 고객만족도 평가결과 중

양행정기관 중에서 2년 연속 만족도가 높은 우수기관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은 2007년도에 국무조정실에서 조사한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평가에서 46개 중앙행정기관 전체에서 1위를 차지한 데 이어 2008년도에 조사

한 고객만족도 조사결과에서도 우수기관으로 평가를 받았다. 고객만족도 평가는 '주요정책 만족도'와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결과를 합산하여 산출하였는데 농촌진흥청은 '주요정책 만족도'와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모두에서 만족도가 높은 기관으로 나타났다. 주요정책 만족도는 농촌진흥청의 핵심정책에 대하여 일반국민, 전문가, 내부고객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하여 7점 척도 기준 4.94점으로 전체기관 평균 4.56점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는 일반민원인 및 인터넷민원인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하여 7점 척도기준 5.89점으로 전체기관 평균 5.15점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은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 혁신을 실현하기 위하여 민원제도 및 서비스 개선을 추진하고 고객만족도를 높이고자, 고객지원담당관실을 확대개편하고 작목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현장지원단과 농업현장 모니터요원을 구성·운영하는 등 현장애로 및 민원해결을 위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고객지원담당관실에서는 2007년도에 '경북 북부지방 사과결실 불량' 등 34건 민원에 대하여 현장기술 지원을 실시하여 401농가가 34억원의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이수화 농촌진흥청장은 "앞으로도 더욱 향상된 고객만족 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하여 농업인·현장·수요자에게 실익을 주고 미래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인력 운영, 조직으로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현장 수요자 중심의 연구개발·기술보급 조직으로 전환하여 One-Stop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